202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추론의 규칙을 분석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①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② (가):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적 논의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④ (나): 윤리 이론을 응용하여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갈대 단이 서로 의지할 때 서 있을 수 있듯,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고, 무명이 멸하면 그 괴로움도 멸한다.
> 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기(氣)로 들어야 한다. 기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도(道)는 오직 빈 곳에만 모인다. 마음을 비우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① 갑: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깨달아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② 갑: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③ 을: 하늘의 도에 따라 시비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④ 을: 무위(無爲)의 다스림을 통해 만물의 위계를 확립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의(仁義)를 실현해야 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하지 않고 기술을 단지 수단으로만 고찰할 경우,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된다.
> 을: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보 기>

ㄱ. 갑: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ㄴ. 을: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ㄷ. 을: 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목적을 지닌다.
ㄹ. 갑과 을: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지도를 통해 선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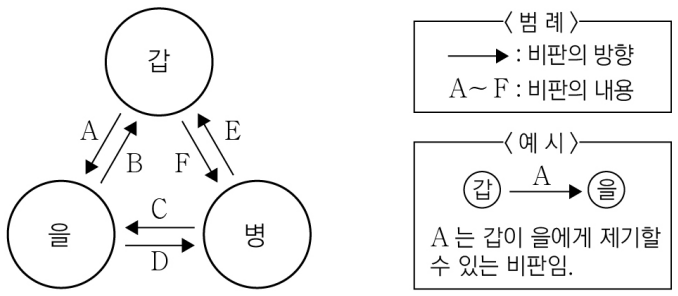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종신 노역형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범죄 성공 가능성과 종신의 고통을 비교하게 한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보다 훨씬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다.
> 을: 누군가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 병: 시민의 안전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로부터 조건부로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데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조국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

(나)



① A와 C: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가해져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② B: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욕한 결과임을 간과한다.
③ D: 살인자를 더 이상 시민적 인격체로 볼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④ E: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각자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다. 국가 내 세 계층 사이의 참견이나 기능의 상호 교환은 이 국가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며 가장 큰 악행이다.
> 을: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가질 수 없다. 백성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어도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면 예의를 익힐 겨를이 없다.

<보 기>

ㄱ. 갑: 국가 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이 있다.
ㄴ. 갑: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직분에 임해야 한다.
ㄷ. 을: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그들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ㄹ. 갑과 을: 다스리는 계층의 사적 재산 소유는 허용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 을: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사회에 속한 국가 구성원들은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공동체에 양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한결같은 심판관이 된다.

① 갑: 통치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갑: 사회 계약 이후에야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③ 을: 개인은 사회 계약 시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④ 을: 만인이 재판관인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
⑤ 갑과 을: 소유권은 사회 계약 여부와 무관한 자연적 권리이다.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현실 공간에서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규범이 요구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익명 표현의 자유 역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람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①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임을 간과한다
② 익명 표현이 인격권 침해 가능성과 무관함을 간과한다
③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야 함을 간과한다
④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함을 간과한다
⑤ 표현의 자유는 인격권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죽음은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며 뛰어넘을 수 없는 확실한 가능성이다.
> 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순수한 상태에 있게 된다. 죽음 이후에야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진정한 앎에 도달할 수 있다.

① 갑: 인간은 삶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참된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② 갑: 인간과 동물 모두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③ 을: 죽음을 계기로 영혼과 육체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④ 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⑤ 갑과 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비로소 참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성스러운 것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삶과 자연에서는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나타날 수 있다. 평범한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기본적인 현상에서부터,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난 사건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존재한다.

<보 기>

ㄱ. 자연물 그 자체가 성(聖)이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성스러움과 속됨[俗]은 서로 구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ㄷ. 성스러운 공간은 주변 공간과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된다.
ㄹ. 성스러움은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 다양한 양태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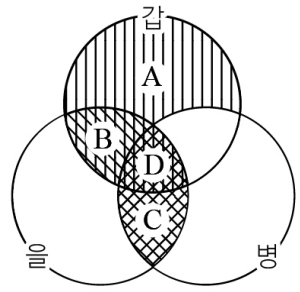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그들의 선(善)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을: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 병: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는 없다.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나)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있다.
ㄴ. B: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ㄷ. C: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ㄹ. D: 행위 당사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자유세계에서는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의 주제는 소유물에 관한 것이며,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소유물의 이전,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으로 구성된다.
> 을: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체제로서, 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가 더 이상 향상될 수 없게 된다.

① 갑: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최초 취득은 부정의하다.
② 갑: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 을: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증진되어야 한다.
④ 을: 국가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재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사유 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나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행위 계획을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른다. 참여자들은 도덕적 논증에 들어감으로써 교란된 합의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반성적 자세에서 소통적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 대화인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① 규범의 타당성 확보는 담론 참여자 다수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③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상적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일지라도 다시 공론화될 수 있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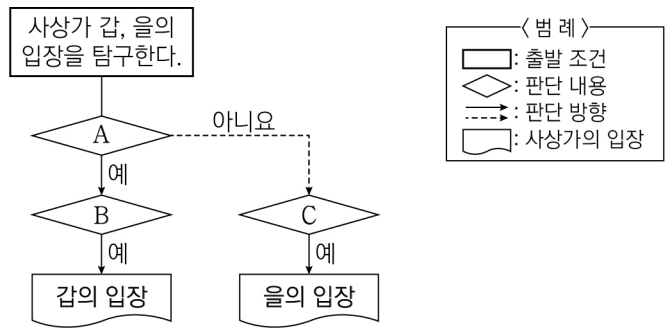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하였다.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일곱 가지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때 공리에 부합한다.
>
> <문제 상황>
> 과학 기술자 A는 드론 개발 기업으로부터 고액을 대가로 고성능 드론 개발 제의를 받았다. A는 고성능 드론이 재난 구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불법 감시에 악용될 수 있기에 그 제의를 받아들일지 망설이고 있다.

① 드론 개발 참여가 오직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려하세요.
② 드론 개발이 초래할 결과를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고려하세요.
③ 사회적 이익을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것임을 고려하세요.
④ 드론 개발이 유덕한 행위자가 참여할 만한 것인지를 고려하세요.
⑤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증진한 행위만이 옳은 것임을 고려하세요.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시민 불복종으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감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 을: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만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나)



<보 기>
ㄱ. A: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A: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가?
ㄷ. B: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ㄹ. C: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게
>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도덕적, 이념적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네. 이러한 다원주의적 사실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문제이기도 하다네.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폐해에 대한 해결책은 관용(寬容)이네. 관용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상생(相生)을 지향한다네. 그런데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네.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것도 관용될 수 없기 때문이지.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관용해야 하고 무엇을 관용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네. 따라서 다름에 대한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네.

① 다원주의적 사실은 다양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②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한 의견은 항상 일치되기 마련이다.
③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불관용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④ 불관용이 사회 내 어떤 구성원의 삶에도 피해를 끼칠 수는 없다.
⑤ 관용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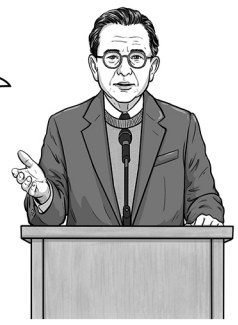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을: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

① 갑: 상비군의 존재가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③ 을: 모든 의도적인 폭력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보장된다.
④ 을: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정치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우리는 사랑을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타인과 결합합니다. 사랑에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랑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은 감정을 정화시키며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갖게 합니다. 갈등을 통한 핵심적 경험에 사랑의 기반이 있으며, 이와 같이 경험되는 사랑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① 사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
② 사랑은 모든 갈등과 불화가 완전히 사라진 합일의 상태이다.
③ 사랑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다.
④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⑤ 사랑은 서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미(美)는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 혹은 동물이기만 한 존재가 아닌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인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미적 만족은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미가 주는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누군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적 만족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① 미는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은 도덕적 선에 기여할 수 없다.
③ 선과 미에 대한 판단은 보편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④ 미와 달리 선은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이다.
⑤ 인간만이 선과 미가 주는 만족을 모두 느끼는 것은 아니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원조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막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어떤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을: 원조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 스스로 정치적 삶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보 기>

ㄱ. 갑: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ㄴ.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인권 탄압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와야 한다.
ㄷ. 을: 여전히 빈곤한 사회라도 추가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갑과 을: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최근 난치병을 치료하고 유전병의 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모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을: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변형된 유전자 정보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갑: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미래 세대의 예견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면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환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는 완치할 수 없어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을: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을 부추기는 등 비치료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만 치료 가능한 질병이 있는가?
②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의료 행위도 허용될 수 없는가?
③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는가?
④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후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있는가?
⑤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